



SINDICATO NACIONAL DE TRABAJADORES DEL SERVICIO POSTAL MEXICANO “CORREOS DE MÉXICO”

COMITÉ EJECUTIVO NACIONAL



뉴스레터 -

주요 행사

전국노동자연합

멕시코 우편 공사

멕시코 우정국

전국 노조(National Union Organization)는 조합원들을 위해 더 높고 개선된 임금, 수당 및 복리후생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반 조합원들의 급여 체계 재분류를 이뤄낸 1996~1997년과, 타 연방 정부 기관과의 임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정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던 2002년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02년 당시에는 전국 각지의 우편 노동자들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를 멕시코시티에서 조직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노력은 중앙 정부 부문과 비교했을 때 급여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우리는 SEPOMEX(멕시코 우정공사) 일반 직원들의 급여 인상에 필요한 자금 배정을 요청하기 위해 하원 등 여러 기관에 접촉했습니다.

2007년 - 멕시코 우정국에서 최초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노동조합이 일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협상한 다양한 금전적 혜택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히 지난 6년 동안 해당 혜택들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2016년 - 단체협약에 대한 마지막 포괄적 검토가 이루어짐. 그 이후 SEPOMEX의 규정 미준수 상황은 해마다 악화됨.

2019년 - 이와 유사하게, 12월 23일과 24일에는 멕시코 우정공사 노조가 재무공공신용부(Secretariat of Finance and Public Credit)가 승인한 소급 조정액 및 급여 인상분을 공사 측이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여 전국적인 업무 중단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전국 우체국이 문을 닫아야 했으며, 결국 우리의 요구 사항이 관철되었습니다.

2022.- 전국노조(National Union)는 멕시코 합중국 정치헌법 제123조 A항이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사상 처음으로 멕시코 우정국(Mexican Postal Service)을 상대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편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단체협약 미이행 사태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정국 당국은 위법한 주장을 내세우며, 해당 기관이 헌법 제123조 B항의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연방 조정중재위원회(Federal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Board)에 관할권이 없음을 선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멕시코 대법원은 2024년 SEPOMEX (멕시코 우정국) 와 노동자 간의 고용 관계가 헌법 제123조 A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결하며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연방조정중재위원회는 파업을 막기 위한 합의 도출을 목표로 당사자들을 조정 심리에 소환하여 앞서 언급된 파업 예고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절차 과정에서 SEPOMEX는 조정 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INDICATO NACIONAL DE TRABAJADORES DEL SERVICIO POSTAL MEXICANO “CORREOS DE MÉXICO”



COMITÉ EJECUTIVO NACIONAL

2025년 —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최저 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했던 멕시코 정부의 임금 정책에 발맞추어, 노조는 멕시코 우정국(Mexican Postal Service) 근로자들을 이러한 임금 인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이 겪고 있던 임금 격차 문제로 인해 특히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우정국은 별도의 임금 체계를 적용받고 있어, 최근 몇 년간 중앙 정부 부문의 임금 수준에 비해 뒤처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기존 감독 기관이었던 인프라·통신·교통부(SICT)와 이후 디지털 전환 및 통신국(Agency for Digital Trans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불만 사항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정당한 '생활 임금' 요구를 당국이 수용하지 않자, 전국 노조는 연방 노동법에 의거하여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5년

8월 11일, 노조는 임금 재검토와 관련하여 (분권화된 공공기관인) 멕시코 우정국을 상대로 파업을 예고하고 파업일을 2025년 9월 14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공무원 노조 연합(FSTSE)이 재무공공신용부(SHCP)에 개입함에 따라, 노조는 일자리 보호를 위해 최종적으로 파업 예고를 철회했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 전체에 대한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우정국 근로자들의 저임금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 멕시코 우정 당국이 2024년 조정 합의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추가로 위반함에 따라, 노조는 파업 예고와 함께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출했습니다. 파업은 2026년 5월 1일 자정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며, 미이행된 여러 요구 사항 중에서도 정규직 일자리 2,500개 복구가 핵심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 결과, 수차례의 회의와 조정 심리를 거쳐 2026년 5월 26일 연방 노동법원(집단 노동 분쟁 담당)에서 조정 합의가 체결되었으며, 해당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력 채용: 총 2,500개 일자리 중 400명 채용.
- *법무 및 노무 사안: 노조의 요청에 따라 부과된 제재 조치를 사안별로 검토.
- *휴가 및 휴무: 관련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약속.
- *시설 유지보수: 보건안전위원회가 지정한 시설 및 장소를 우선적으로 관리.
- *공구 및 장비: 작업자에게 자재, 공구, 유니폼, 우천용 장비 지급.
- *교육 및 훈련: 멕시코 우정국(Mexican Postal Service)의 신규 입사자 교육 과정을 통한 훈련 실시.



우리는 투쟁을 이어갑니다. — 이미 체결된 합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조는 멕시코 우정국 노동자들의 경제적 복지를 증진하고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연방 노동법에 의거하여 단체협약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이번 재검토의 최우선 목표는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임금 곡선을 바로잡는 한편, 조합원들이 은퇴 후에도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준의 임금 인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파업 통보의 사유 — 전략적 판단 및 노동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우리는 연방 노동법원(단체교섭 담당)에 관련 절차를 밟는 한편 멕시코 우정국에 파업을 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노동자들이 이미 확보한 권리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보인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려졌습니다.

현재 저희는 노동 당국 주관의 조정 절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체협약상의 혜택을 강화하고, 저희가 대변하는 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임금 인상을 확보하기 위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ANGEL BARRIOS CUEVAS

행정 지원

SINDICATO NACIONAL DE TRABAJADORES DEL SERVICIO POSTAL MEXICANO
“CORREOS DE MÉXICO”